



## 하나가 되어 더 멀리!

SIMPAC그룹은 최상의 기술, 최고의 제품을 고객에게 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계 및 합금철 제조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철강 유통/가공에서 프레스 제조, 주조/주물, 합금철 생산에 이르기까지,  
THE FIRST, THE BEST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며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에도 SIMPAC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SIMPAC STORY 2015 NEW YEAR VOL. 29

# SIMPAC STORY



기(起)승전결:  
희망의 페이지를 펼쳐다

## SIMPAC Group



**SIMPAC 홀딩스**

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SIMPAC**

글로벌 프레스 메이커  
• 중소형, 대형 프레스 제조



**SIMPAC 인터스트리**

고품질의 주조주물 선도기업  
• 산업기계, 공작기계, 감속기 및  
부품 생산



**SIMPAC 메탈로이**

국내최초 합금철 개발/생산 기업  
•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 생산  
• 고분자 화학사업



**SIMPAC 메탈**

고부가가치 합금철 생산기지  
• 고품질, 고부가의 중저탄소  
페로망간 생산





## NEW YEAR SIMPAC 캠페인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활짝 웃으면 왠지 모르게 내 기분도 가벼워집니다. 옆 사람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 덩달아 나른한 기분이 들게 되고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서로에게 옮겨지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SIMPAC인들은 어떤 얼굴, 어떤 말투로 동료들을 대하고 있나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사무적인 말들만 건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늘 하던 말에 웃음을 더하고, 배려의 마음을 전한다면 우리 일터에 작지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없나?”와 같은 비난의 말보다는 “자네라면 신속하게 해낼 수 있을거야”라는 응원의 말을 하는 것, 퇴근하는 동료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기보다는 눈을 마주치며 “낮에 내 업무 도와주느라 수고 많았어”와 같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 등, 일상 속에서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2015년의 새 날이 밝았으니 SIMPAC인들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 SIMPAC STORY

28



**SIMPAC STORY**  
2015년 NEW YEAR  
통권 29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5년 1월 28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IR큐더스 02-6011-2000  
편집 및 디자인 ㈜IR큐더스 02-6011-2000  
인쇄 삼진커뮤니케이션즈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이용기 사원  
02-3780-4923  
wklee@simpac.co.kr  
정제린 과장  
032-590-2020  
jljung@simpac.co.kr  
㈜SIMPAC  
이혜정 사원  
032-510-0020  
hjlee@simpac.co.kr  
㈜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7  
hrmin@simpac.co.kr  
㈜SIMPAC메탈로이  
선광규 대리  
054-271-8724  
kgsun@simpac.co.kr  
㈜SIMPAC메탈  
이준기 대리  
041-360-0124  
jklee@simpac.co.kr

40



- 04** SIMPAC's Message  
신년사
- 09** Review of Highlights  
2014, 주목할 만한 순간들
- 10** 2015 새해바라기  
양띠 SIMPAC인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 14** 기획 칼럼  
유명 CEO들의 목표 달성법
- 20** Special Story  
SIMPAC그룹 역량 강화과정을 마치고
- 28** SIMPAC패밀리  
SIMPAC 품질지원팀 한완수 대리·경영지원팀 장영미 사원
- 32**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생산2팀
- 36** With Us 01  
SIMPAC그룹 창립기념 SIMPAC인더스트리 마니산 등반
- 38** With Us 02  
SIMPAC메탈로이 직원화합 행사
- 40** With Us 03  
충남 태안으로 떠난 SIMPAC메탈 한마음 전진대회
- 42**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Essay
- 43** Letter from SIMPAC인  
당신을 칭찬합니다
- 44** SIMPAC News  
SIMPAC 소식
- 49**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 알립니다

36







## SIMPAC그룹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는 기업적 환경뿐 아니라, 국내의 정치 사회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울한 사건 사고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회사뿐 아니라, SIMPAC그룹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회사도 예외 없이 모든 사업부가 근래 최악의 경영성적을 보여, 잊고 싶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연간 최대 수주를 달성한 프레스 국내영업 부문이나 꾸준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SIMPAC메탈로이 2공장 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엔저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 부족한 해외판매량, 그리고 시장을 리드하는 제품력과 기술의 부재는 기

계사업 부문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프레스사업부는 10년 내 최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룹의 일원이 되어 일년을 보낸 SIMPAC인더스트리는 아직도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금철 사업부문도 수익성 저하를 피할 수 없는 긴 불황의 터널에서 출구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향후 SIMPAC그룹의 생존전략에 어느 때보다 골몰해 왔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해답을 얻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지난 연말 여러분도 잘 아는 한 미국 기업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우리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회사로 유명한 ‘시스코(Cisco)’이고, CEO는 ‘존 체임버스(John Chambers)’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시스코의 매출을 2조 원에서 51조 원으로 늘렸으며, 시가총액 143조 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시스코의 장비 없이는 PC를 회사 전산망에 연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터넷 사용자의 70%가 이 회사가 만든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기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시스코의 성장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언제나 고객중심으로 생각한다.

둘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셋째,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핵심품목의 수익성과 고객의 충성도를 높인다.

시스코에서는 ‘기술과 결혼할 수 없고, 제품과 결혼할 수 없지만 고객과는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 내려옵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 수요에 맞추는 것이 시스코 창업부터의 일관된 전통이라는 겁니다. 라우터와 스위치, 비디오 화상통화, 보안,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모두가 시장 1등이 된 것은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SIMPAC그룹의 계열사는 각자 처한 입장에서 얼마나 고객중심 경영이 되고 있는지 반성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것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고민하고 있는지요, 나아가 현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선진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토탈 솔루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SIMPAC그룹 임직원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는 가장 큰 규모의 임원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인사의 핵심내용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린 시스코가 시사하듯이 ‘공작기계, 산업기계, 주물사업부, 합금철사업부, Roll사업부 등 모두가 이러한 초심으로, 고객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고객은 영업부서만의 상대방이 아님을 우리 조직은 언제부터가 조금씩 망각해가고 있습니다. 기업 간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는 고객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프레스 A/S 담당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이 고객의 접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격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R&D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고객이 답입니다.

A/S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고객을 위하는 곳입니다.

생산은 물론이고 인사, 총무 모든 곳이

⇒고객중심주의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프레스사업부에서는 고객중심으로 생각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전 LED, LCD 사업의 팽창에 맞추어 우리 회사는 MC-Type의 기계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제작·공급함으로써 수년간 막대한 매출기여에 첨병 역할을 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SIMPAC인더스트리의 경우 산업기계 부문에서의 고객중심은 아직 먼 거리에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수년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국내에는 지배적 위치의 경쟁자가 없으며, 이번에 새로 인수하게 될 ‘동화산기 가류기사업부’와 더불어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인수 후 1년간의 소감을 한 마디로 평하자면, ‘회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 드린 고객(시장)의 이해와 고객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개인별, 부서별 및 회사 차원에서 확실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산업기계 부문의 경우 새로 인수하게 될 동화산기 임직원들이 비교적 고객지향적 사고와 조직을 갖고 있기에 향후 함께 노력하다면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SIMPAC 그룹 임직원 여러분!

현재의 SIMPAC그룹과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부분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퇴로가 막혀있다는 과부침주(破釜沈舟)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무거운 단어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연말에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새해 아침, SIMPAC그룹 회장 최진식





## 친애하는 SIMPAC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 한 해도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재물과 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청양(靑羊)의 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도 세계 경기 부진, 일본의 엔저 흐름 등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 각급의 위기 상황에 대해 통감하고 변화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과오는 모두 잊고 2015년은 SIMPAC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IMPAC 임직원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 듯 모든 SIMPAC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선도업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은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 정본청원(定本淸源)처럼 SIMPAC 임직원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나타내진 우리 모두의 모습을 버리고 현장 중심의 경영활동 강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프레스 제조 등 제품의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프레스 산업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SIMPAC 임직원 모두 나부터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항상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둘째, 끝까지 집요하게 실행하는 문화 정착, 셋째, 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 주신다면 2015년은 SIMPAC에게 있어서 글로벌 프레스 제조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목표와 다짐이 알찬 결실을 맺고 SIMPAC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SIMPAC 대표이사 전 지 중



## SIMPAC인더스트리 가족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혁신적 경영이라는 목표 하에 경영체질의 개혁과 경영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적지 않은 이품을 감수하며 인력감축, 경비절감 등 감량경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로 보아 조직 내에 만연해 있는 부실과 비생산적인 낭비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 팀은 팀의 경쟁력이 회사 내의 경쟁력이고 곧 그룹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당나라 때 선승인 ‘임제’의 선어 중 “어디에 가 있건 주인이 되라, 그리하면 참되리라”라는 뜻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곳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면 어디서나 참된 생명을 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흔히 어디서나 전력투구하라는 말로 쓰입니다. 우리가 SIMPAC인더스트리라는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어 전력투구를 한다면 SIMPAC인더스트리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SIMPAC인더스트리 임직원 여러분!

기업의 경쟁력은 생산력, 인적자원, 기술력, 재무력, 기업인지도, 조직력의 결합으로 형성되며 끊임없는 경영혁신으로 다듬어지고 강화됩니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들은 먼저 시대와 환경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지만, 모든 임직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역량을 한데 모으기만 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어려움 없이 돌파할 수 있으며, 오히려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정관념에 의한 타성이나 패배주의 등 부정적 사고가 아닌, 변화를 갈망하는 모험정신과 확신에 찬 도전, 그리고 그에 기초한 주인의식과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희망찬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힘을 모아 도약의 2015년을 만들어 봅시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서 련 석





## 사랑하는 SIMPAC메탈로이·SIMPAC메탈 가족 여러분, 2015년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 계속된 철강경기 침체와 전력비 등의 제조원가 상승, 환율과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 해를 맞아 타 기업들의 신년사에는 '양처럼 온순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문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양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들의 생존 전략을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내몽골 지방에 출장을 가면서 보았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 밖에서는 5분도 버티기 힘든 황량한 벌판 위에서, 양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로 덮여 있어 순하게만 보이는 모습은 추운 기온을 견뎌내기 위한 그들의 생존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는 양처럼 온순한 한 해가 되길 바라기 보다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그들의 전략을 닦아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철강경기회복 시점을 예측할 수 없고, 저가수입품의 물량공세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며, 경쟁사인 동부메탈이 속한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 압박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이제 무한경쟁을 넘어 생존경쟁시대로 접어들 듯 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SIMPAC메탈로이와 SIMPAC메탈의 생존을 위한 전략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잔잔한 파도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 포트폴리오, 설비자동화, 조업기술 향상 등의 혁신적인 마인드와 개선의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영업이익 극대화입니다.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생산성 향상과 극한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서 낮춰야 하며, 매출액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고객과의 협력적 유대관계 유지 및 신규고객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조직내부역량 강화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곧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일·학습병행제 참여와 사내의 교육강화 등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상황에 따라 어느 부서에서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어로 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SIMPAC메탈로이와 SIMPAC메탈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SIMPAC메탈로이, 그리고 SIMPAC메탈 임직원 여러분!

어려움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두려움이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마인드와 노력이 있다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2015년 한 해는 양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떠오르는 희망찬 붉은 해를 바라보며,  
SIMPAC메탈로이·SIMPAC메탈 대표이사 송 효 석



## 2014, 주목할 만한 순간들

### SIMPAC그룹의 새 가족이 탄생하다

SIMPAC인더스트리, 80년 축적된 기술력 바탕으로  
세계 시장 향한 힘찬 재도약



1936년 설립 이래 80년 가까이 국내 주요 산업을 선도해온 SIMPAC인더스트리가 지난해 4월, SIMPAC그룹에 합류하며 더 큰 성장을 향한 새 출발을 알렸다. SIMPAC인더스트리는 오랜 세월 동안 독보적인 주조/주물 기술력을 자랑하며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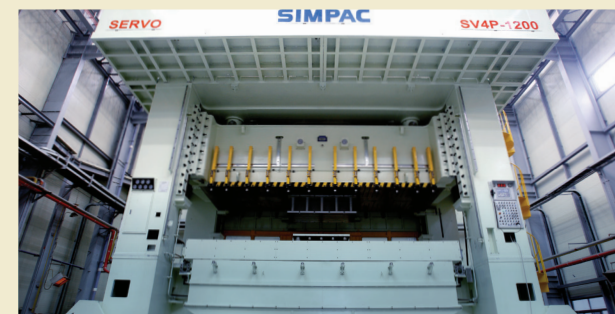
기계와 공작기계 등 주요 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활발한 사업을 펼쳐온 기업이다. 지난 2000년대 들어서며 신규 사업 전개과정에서 사업적 부침을 겪었으나 프레스 및 합금철 사업의 강자인 SIMPAC그룹의 계열사로 재탄생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었다. 최진식 SIMPAC그룹 회장은 지난 4월 1일, SIMPAC인더스트리 출범식에서 “SIMPAC이라는 이름 아래,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발휘”하자며, “SIMPAC그룹은 여러분의 버팀목이자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NEW PRODUCT

## 한 차원 높은 성능의 서보프레스를 개발하다

SIMPAC, 기존 제품과 차별화한 ‘SV4P-1200’ 출시  
국내 최초 미국안전규정인 NRTL 인증 획득



지난해 SIMPAC은 시장의 흐름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서보프레스를 내

기구학적 구조 및 제어기술을 적용하였고, 복수의 모터(3EA) 및 신규 서보모터시스

를 개발한 ‘SV4P-1200’이 바로 그것이다. 비슷한 능력의 프레스 대비 한 차원 높은

템을 사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였다. 특히 SV4P-1200은 미국으로 수출, 현지에서 설치된 제품으로 국내 프레스 업계 최초로 미국안전규정을 만족시키는 NRTL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SIMPAC은 지난 4월에 고객초청 시연회를 열어 SV4P-1200의 특징점을 소개하고 제품 시연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SV4P-1200을 기존 기계프레스의 성형 한계를 해결할 제품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 2015 새해바라기

양띠 SIMPAC인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짐들 하셨나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또는 8,760시간, 또는 525,600분, 또는 3,153,600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연금처럼 매년 주어지지만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다른 전략을 짜보는 게 어떨까요? 누구보다 부지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SIMPAC인들은 어떠한 마음가짐, 전략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2015년 양띠해를 맞은 양띠 SIMPAC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❶ 양띠 성격은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외양처럼 온순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자존심이 강해 목표한 바가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외유내강의 성격 또한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성격은 이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비슷하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주세요.
- ❷ 나의 태몽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성격이나 현재 모습과 어울리는 내용인가요?
- ❸ 지난 한 해 가장 인상 깊거나, 행복했던 사건이 있다면요?
- ❹ 2015년을 맞아 생활에서의 목표와 일에서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 ❺ SIMPAC인들에게 보내는 화이팅 메시지를 본인 이름을 사용해 삼행시로 만들어주세요.

## SIMPAC

## ▶경영지원팀 한승엽 사원 91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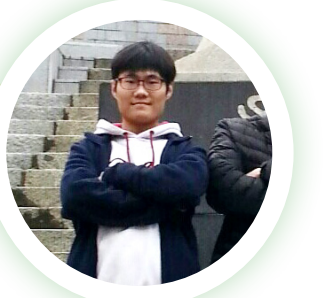
- ❶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소심한 면이 있어서 조용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하면 남의 시선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 ❷ 길을 걷다가 빛이 나는 바위를 보고 두드려 봤더니 아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갖고 있는 우직한 면모가 저와 닮은 것 같습니다.



- ❸ 교육기간 중에 집으로 화분이 하나 왔는데 SIMPAC에서 보낸 입사 축하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시며 제게 전화하셨던 게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사건이었습니다.
- ❹ 일: A/S 업무에 배치된 만큼 제가 맡은 기계Part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아서 일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생활: 헬스를 꾸준히 다니면서 끈기를 키우고 발전적인 생활 자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 ❺ 한: 한기가 드는 추운 겨울에도  
승: 승승장구하는 SIMPAC을 위해  
엽: 엽(옆)구리 시리도록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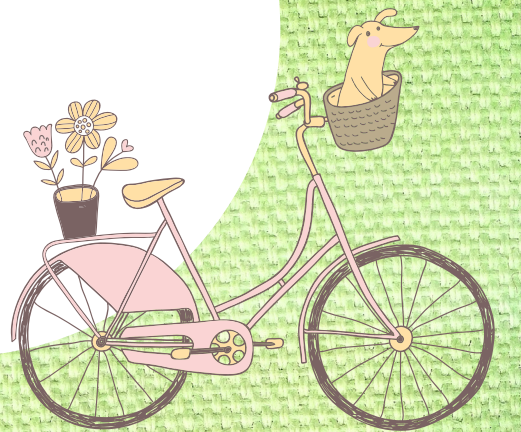
## ▶경영지원팀 고영록 사원 91년생

- ❶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온순하고 타인을 배려한다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❷ 거북이가 등에 태워 왔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얌전하고 온화한 모습이 제 성격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❸ SIMPAC에 입사한 것이 가장 인상 깊은 사건입니다.
- ❹ 생활: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일: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했으면 합니다.
- ❺ 고: 교통스럽고  
영: 영~ 기운이 나질 않더라도  
록: 녹 다운(knock down) 당하는 일 없이 화이팅!



## ▶생산1팀 조립2반 이재규 사원 79년생

- ❶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지만 온순하고 타인을 배려하려고 하는 점은 맞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자존심을 굽힐 때도 생기고, 성격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 ❷ 내년 목표는 이사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편히 뛰어 놀 수 있는 1층의 크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2015년 가장으로서의 목표입니다.
- ❸ 이: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재: 재미나고 즐겁게 살아보고자 하는데... 많은  
규: 규율과 법이 억압하더라도 소주 한 잔하며 다 잊고 웃어 넘깁시다!





## SIMPAC인더스토리

### ▶설계팀 박호천 차장 67년생

① 온화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대화할 때면 주로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기 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할머니께서 밤 한 소쿠리를 받아 숨겼다고 하십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현재의 모습이나 성격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③ 이라크로 출장을 떠났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현지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 외부에서 생각하던 이미지와는 다른 순수함과 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시운전 중 발생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원만하게 일을 마치고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④ 생활 :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는데 2015년에는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일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⑤ 박 : 박진감 넘치는 직장 생활로 2015년에는  
호 : 호황기를 만들어  
천 : 천 억원 매출 달성을 이룩하자, 화이팅!



## SIMPAC메탈로이

### ▶설비안전팀 박성배 차장 67년생

① 풀만 뜯는 순한 양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 뿔이 있는 짐승이니 만큼 강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누린 용도 아닌 시퍼런 용품이었다는 데, 풀을 먹는 용이었을까요?^^ 그래도 언젠가 비상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점이 저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③ 개구쟁이 짓을 하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어느 날 제게 '5분간 안마' 티켓 5장을 주면서 필요할 때 쓰면 시원하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고 있는 건지 이런 작은 일들이 아주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④ 생활 :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에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새해에는 운동센터에 등록해서 체력단련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 : 좀 더 혁신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찾아 어려운 경기 속에 원가절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⑤ 우리 SIMPAC인을 위한 안전한 작업장을 확립하여 재해 없는 일터에서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여러분 가족 모두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박 : 박수를 자신과 남에게 보내면  
성 : 성공합니다.  
배 : 배로 행복한 날이 펼쳐집니다.^^



### ▶1공장 전기로 A조 임희석 반장 67년생

① 온순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표한 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점은 양띠 성격과는 반대로 외강내유 성격일지도 모르겠네요.^^

③ 큰 딸이 과 차석했다고 장학금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④ 생활 : 조그만 소망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일 :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SIMPAC메탈로이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⑤ 임 : 임시직으로 출발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희 :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SIMPAC인이 된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석 : 석 잔의 소주를 마시며 마음을 달래시고, 여러분이 SIMPAC의 미래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 ▶2공장 고무반 최영호 사원 67년생

① 승부욕이 강하다고 할까요, 게임이나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팀원 간에 이견이 있어 마찰이 생길 때도 있지만 각자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② 돼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잘 먹는 것은 현재 모습이고요.^^

③ 느지막이 SIMPAC메탈로이에 촉탁 사원으로 2년 근무하다가 정직원이 된 것이 가장 행복한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동료들 모두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준 것 또한 인상 깊고요.

④ 생활 : 올해 화두가 담뱃값 인상이죠. 그래서 금연을 목표로 세웠어요.

일 : 지금 현재 맡고 있는 Roll 측면 코팅 작업에서 최고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⑤ 최 : 최선을 다하는 SIMPAC인 여러분!

영 :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호 : 호기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 SIMPAC메탈

### ▶설비물류팀 설비반 최기훈 사원 79년생

① SIMPAC메탈에 79년생이 5명 있는데 공통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한 번씩 까칠해진다고 할까요?

② 저희 조부께서 꾸셨는데, 맑은 연못에 큰 잉어 한 마리가 다가와 안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제가 태어났죠. 잉어는 서식지가 넓고 잡식성이라 합니다. 타지 적응을 잘하고 음식도 가리지 않는 면이 저와 닮은 구석이 있는 듯 해요.

③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건강을 바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 가족 무사안녕 했던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④ 생활 속에서는 체력에 신경 쓰려 합니다. 많지 않은 나이이지만 가끔 체력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일에서의 목표는 맡은 업무가 설비 관리이다 보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려 합니다.

⑤ 지금부터

최 : 면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기 : 반을 준비 되셨죠?

훈 : 이가 외칩니다. "기가 산다! 기가 팍팍!!" 2015년에도 화이팅!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015

SUNDAY

## 그들의 사진에 직접 남긴 일이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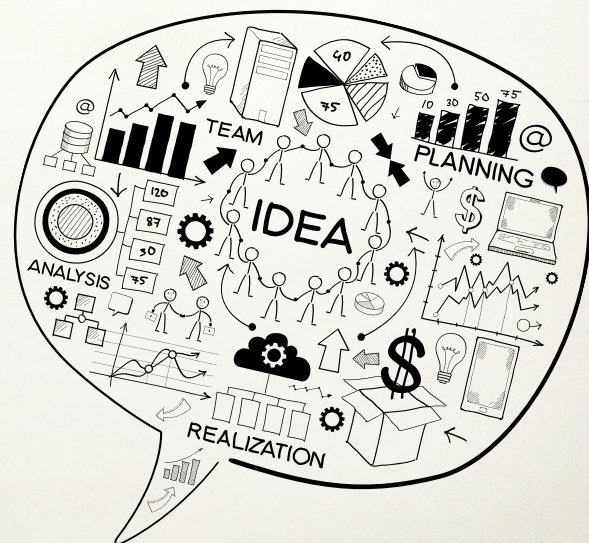
### 유명 CEO들의 목표 달성법

영국의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6개월에 걸쳐 5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새해에 결심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10%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실천해가느냐에 있습니다.

워크스마트의 창립자인 그레그 레이디는 '꿈을 이루는 날짜를 함께 적어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그 꿈이 실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를 잡고,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지요.

SIMPAC인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의 방법을 생각해야 할 차례입니다. 늘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나가는 CEO 들의 사례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글 자유기고가 배나영



# +20%

목표를 정할 때는 '플러스 20퍼센트' 원칙에 따르자

#### ▶이재욱 CEO가 말하는 목표달성의 비밀

현재 CJ의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욱 CEO는 직장 생활 40년 중 절반 이상을 CEO로 살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손만 대면 성공을 이뤄내는 CEO로 알려져 있지요. 삼성물산에서 일할 때는 최악의 실패를 성공의 지렛대로 삼아 승승장구했고, GE에서는 6년 간 연평균 45%의 매출성장 실적을 올렸으며,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공항계의 노벨상이라는 세계최고공항상(ASQ) 7연패를 이루는 등, 몸담은 조직마다 최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120%의 목표 설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가능성과 능력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목표 수립을 자신의 최대치로 정하면 실패했을 때의 위험 부담이 크고, 최저치로 목표를 수립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재욱 CEO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20%를 제한 수치를 공개목표로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자기 자신은 공개된 목표보다 20% 높은 선을 바라보며 뛰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공개된 목표보다 20%를 더 달성하면 누구에게나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자신의 최대치에 달하지 못해 20%를 더 해 내지 못했을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목표를 100% 완성한 사람으로 평가 받습니다.

# 6month

6개월의 지속적 노력으로 자신의 임계점을 넘어서자

#### ▶김영식 회장이 말하는 10미터를 더 뛰는 법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 회사인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은 '뚝심대장', '연 매출 1200억 원의 성공신화', '산수유 회장님'과 같은 별칭을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회장이지만 그는 10년 전 비(非)전문 분야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오른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M  | T  | W  | T  | F  | S  | S  | M  | T  | W  | T  | F  | S  | S  | M  | T  | W  | T  | F  | S  | S  |
|    |    |    |    |    |    |    |    |    |    |    |    |    |    |    |    |    |    |    |    |    |
| 5  | 6  | 7  | 8  | 9  | 10 | 11 | 2  | 3  | 4  | 5  | 6  | 7  | 8  | 2  | 3  | 4  | 5  | 6  | 7  | 8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6 | 27 | 28 | 29 | 30 | 31 |    | 23 | 24 | 25 | 26 | 27 | 28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    |    |    |    |    |    |    |    |    |    |    |    | 30 | 31 |    |    |    |    |    |

CHECK LIST:

- chat

- share

- check-in

cloud

DOWNLOAD!

- files / photo  
- song A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2015

당시 김영식 회장이 갚아야 할 빚은 무려 22억 원이었습니다. 한 끼 밥값이 없어서 소주 한 병과 600원짜리 소시지로 허기를 달래야 했지만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빨리 빚을 갚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시지만 먹던 그에게 가장 참기 힘든 것은 골목길에서 풍기는 삼겹살 냄새였습니다. 그는 자주 전봇대 뒤에 숨어 삼겹살을 구워먹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주머니에 6천 원이 있는데, 딱 한 번만 먹으면 안될까.' 하지만 그는 직원들과 삼겹살을 구워 회식하는 날을 상상하며 목표를 향해 정진했습니다. 김영식 회장은 딱 1년 11개월 만에 빚 22억 원을 다 갚았습니다.

김영식 회장의 목표 달성 비결은 10미터를 더 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100미터를 달려온 사람에게 200미터, 300미터를 더 뛰라고 하면 누구라도 포기하겠지만 10미터만 더 뛰라고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단, 무작정 달리지 말고 뚜렷한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합니다. 김영식 회장은 6개월을 그렇게 지속하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삼겹살을 먹고 싶은 마음을 꼭 누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금 더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남들보다 10미터를 더 뛰는 방법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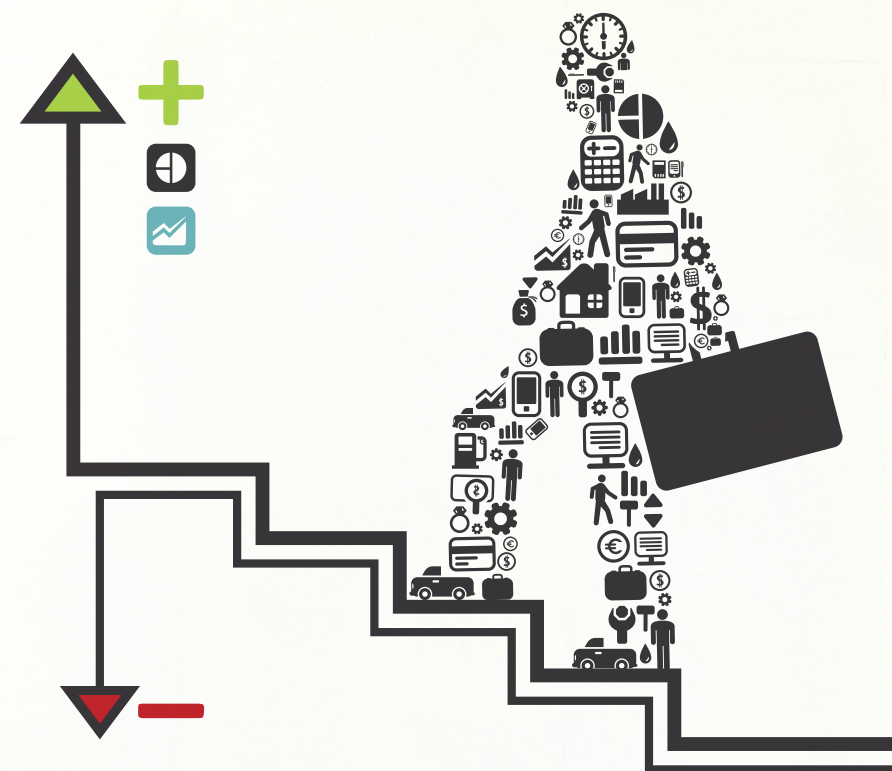
## ACTION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무조건 실천하라

### ▶김원길 대표가 말하는 세계 1등 회사의 비결

연 매출 500억 원의 제화기업으로 성공반열에 올라선 김원길 (주)안토니 대표는 중졸신화의 주인공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영등포의 작은 구두가게에서 일을 시작해서 구두 기술자로 이름을 날리다가 관리와 영업직까지 두루 거치며 1990년에 자신의 회사를 차려 독립했지요. 2010년에는 명품 구두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로 수출을 시작했고, 향후 15년 안에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원길 대표의 목표는 늘 같습니다. 세계 1등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매출 1위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 되어야 세계 1등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김원길 대표는 직원들에게 업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승마와 수



상스키, 최고급 스포츠카 타기와 같은 취미활동을 지원하며 전 세계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에게 효도 잔치를 열어 사회공헌도 시작했습니다. 건전하고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매출 1위'를 논하지 않고도 결국 매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의욕 넘치는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으며 회사는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원길 대표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을 뿐이지요. 단순한 진리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많아도 소용 없습니다. 실천에 옮겨야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을 통해 만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1                    | 2                    | 3                    |
|----------------------|----------------------|----------------------|
| M T W T F S S        | M T W T F S S        | M T W T F S S        |
| 1 2 3 4              | 1                    | 1                    |
| 5 6 7 8 9 10 11      | 2 3 4 5 6 7 8        | 2 3 4 5 6 7 8        |
| 12 13 14 15 16 17 18 | 9 10 11 12 13 14 15  | 9 10 11 12 13 14 15  |
| 19 20 21 22 23 24 25 | 16 17 18 19 20 21 22 | 16 17 18 19 20 21 22 |
| 26 27 28 29 30 31    | 23 24 25 26 27 28    | 23 24 25 26 27 28 29 |
|                      |                      | 30 31                |

CHECK LIST:

- chat

- share

- check-in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 GOAL

명확한 목표와 세부 계획을 세워두자

▶김종훈 회장이 말하는 성공의 기회를 움켜쥐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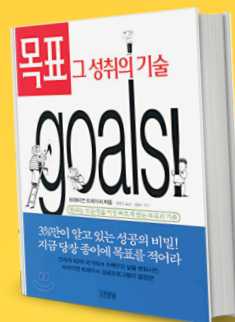
한미글로벌은 한국 최초이자 최고의 건설사업관리, CM(Construction Management) 전문기업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보며 설계관리를 돕고, 시공관리와 사후관리를 맡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훈 회장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지켜보며 이런 비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구상하여, 1996년 '한미파슨스'를 설립해 우리나라 최초로 CM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식이 열리는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을 수주,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한 공사임에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부실시공 시비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예정보다 공사기간을 넉 달 앞당기고, 예산을 40억 원이나 절감하면서 공사기간 30% 단축, 건설공사비 10% 절감이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등의 CM을 맡으면서 초고층 건설 CM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700여 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9곳에 해외법인을 설치했으며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미국, 남아메리카 등 36개국에 진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김종훈 회장의 확고한 목표의식과 철저한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세계 10대 CM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연간 1조 원 규모의 수주와 8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 왔습니다. 그는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평소에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2015년, 새해 목표를 이루고 싶은 당신에게 권하는 책

# BOOKS FOR YOU

유명한 석유 억만장자 H.L.헛트는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 둘째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치려야 할 대가를 결정하고 열심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혹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새해를 맞아 스스로에게 한 번쯤 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목표, 그 성취의 기술]

브라이언 트레이시,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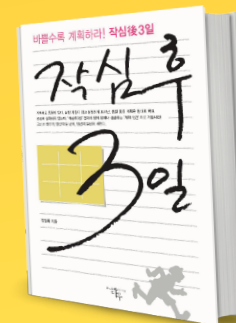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 책은 발간된 지 오래 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재인쇄되며 사랑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목표 달성에 관해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 가장 완벽하다는 극찬을 받았지요. 목표를 설정하는 실제 방법뿐 아니라 강력한 실천 방안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 책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이 성공의 최고 기술이며,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목표라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목표를 세움으로써 자기 스스로 삶의 변화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씩 실천에 옮기다 보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만약 고교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이와사키 나쓰미, 동아일보사

이상한 제목의 소설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출간 1년 반 만에 250만 부가 팔리면서 같은 해 출판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를 제치고 2010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십대 소녀인 미나미입니다. 미나미는 아픈 친구 대신에 고교 야구단의 매니저가 되지요. 그녀는 우승에 대한 열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부원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 야구단을 강력한 조직으로 바로잡기 위한 계획에 착수합니다. 미나미가 오합지졸을 우승팀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낸 것은 경영학의 고전인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라는 책입니다. 드러커는 "목표란 운명이 아니다. 목표는 방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책을 읽은 미나미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나미는 고교야구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드러커가 제시한 다양한 원칙을 활용해 감동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딱딱하지 않은 자기계발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작심 후 3일]

김일희, 다우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자성어가 바로 작심삼일(作心三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게 먹은 마음이 3일을 못가서 흔들린다는 이 말처럼 연말 연초마다 반복되는 작심삼일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자는 작심삼일의 주범은 제대로 세우지 않은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계획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책에 따르면 98%의 실행을 지배하는 것은 2%의 계획입니다. 계획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매니저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다이어리에 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수립법을 알려줍니다. 장기, 중기, 단기, 연간, 주간, 일일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기간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계획에 대처하는 자세도 소개합니다. 찬찬히 옆에 두고 읽어보면 작심한지 3일 뒤에든 꾸준히 계획을 실천하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CHECK LIST:

- chat

- share

- check-in

cloud  
↓  
DOWNLOAD!  
- files/photo  
- song A



SIMPAC홀딩스  
이엔지 사업부문  
이준수 사원SIMPAC  
국내영업팀  
이민석 사원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우경란 사원

## 무지개처럼 펼쳐진 새내기 SIMPAC인들의 이야기

### SIMPAC그룹 역량 강화과정을 마치고

같은 지붕 아래서 삼시 세끼를 같이 하며 3박 4일의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의 얼굴을 모르던 이들에게조차 꽤 큰 관계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특히나 SIMPAC의 가족이 되어 첫 해를 보내고 있는 새내기 SIMPAC인들이라면 따로 또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에 이 같은 시간이 값질 터. 지난 11월 마지막 주 3박 4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횡성에서 'SIMPAC그룹 역량 강화과정'을 마치고 온 이들은 어떠했는지 몇몇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이렇게 물었습니다!

- 1 말고 있는 업무와 SIMPAC에서 일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 2 어릴 적 or 학창시절 꿈꾸던 직업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얼마나 이루었나요?
- 3 일을 배우고 적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요?
- 4 선배들에게서 가장 배우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 5 이번 'SIMPAC그룹 역량 강화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 6 앞으로 어떤 모습의 SIMPAC인이 되고 싶나요? 2015년 포부를 밝혀주세요.

SIMPAC메탈  
인사총무팀  
이두현 사원SIMPAC홀딩스  
이엔지 사업부문  
이준수 사원SIMPAC메탈로이 1공장  
합금철생산팀  
김상원 사원SIMPAC  
생산1팀  
박결 사원SIMPAC홀딩스  
이엔지 사업부문  
이준수 사원

1 공무Part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일과 사무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평소에 SIMPAC 관련 신문기사를 보거나 SIMPAC 사옥을 지나칠 때 나도 저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습니다.

2 학창시절 꿈꾸던 직업이 전기회로 설계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전기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관련 기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죠. 원하던 직무를

선택한 덕분에 현재 실무에서도 이론을 접목해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처음 접한 크레인, 용접기 설비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겪어 보지 못한 일이었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터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점검해야 하는 게 겁나기도 했어요. 이제는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하여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4 SIMPAC홀딩스 이엔지 사업부문의 특성상 관리자들도 용접에 대해 많이 알아야 프레스 품질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로부터 용접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비트가 잘 나오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배우고 싶습니다.

5 처음 보거나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조(슈퍼 3조)가 협동심을 발휘하여 실내조정 단체전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요, 동기들의 노력과 땀으로 얻은 결과이기에 더 값진 소득이었습니다.

6 2015년에는 지금처럼 사무일과 현장일을 병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고자 합니다. 프레스 첫 공정이 SIMPAC홀딩스 이엔지 사업부문에서 이뤄지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이수영 과장SIMPAC인더스트리  
생산1팀  
김효수 사원



WE ARE  
SIMPAC人SIMPAC  
국내영업팀  
이민석 사원

①부산영업소에서 근무하며 부산 서부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지역 외에도 소장님과 과장님 업무를 지원하며 배우고 있죠. SIMPAC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 지원했고, 지금은 저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일터가 되었습니다.

②어릴 적, 친구들과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했구요. 그래서인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영업사원으로 첫 발을 내밀었으니 50%는 이론 것 같습니다.^^

③프레스에 대해 무지했던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또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 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약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업체의 담당자들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④다년간의 업무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책이나 사진만으로는 보거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워 빠르게 성장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⑤지난해 4월에 있었던 신입사원 교육 이후 오랜만에 동기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했습니다. 특히, 3일차에 했던 실내조정과 릴레이 미션 등은 함께 땀 흘리며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⑥2015년에는 영업사원으로서 첫 수주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SIMPAC과 SIMPAC그룹의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SIMPAC  
생산1팀  
박결 사원

①해외설치 시운전을 맡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작은 공장의 사장님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소공장 사장 모임에 자주 나갔는데 그분들은 급여나 복지를 근로자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반면에 최진식 회장님은 '돌려준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무척 크게 느껴져 SIMPAC이 제 미래를 펼칠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②아버지처럼 기계 쪽 멀티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터라 반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③설치와 시운전은 한 프로젝트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잘 만들어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면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죠. 아직 신입인 제게 업무의 중요함이 큰 압박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설치를 마친 작업자가 귀국해 다음날 웃으며 인사할 때 큰 보람을 얻습니다. 다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④선배님들은 그야말로 '척하면 척'입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⑤첫째 날, 전지중 대표이사께서 임원이 아닌 선배로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회사라는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의 실내조정 프로그램은 조원들과 차츰 손발이 맞아가고 서로 응원한 끝에 조정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⑥첫째, 멀티 플레이어가 되고 싶습니다. 둘째, '척하면 척'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셋째, 웃음이 있는 SIMPAC인이 되고 싶습니다. 큰 그림을 보며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고, 동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멀티 플레이어, 제가 꿈꾸는 SIMPAC인의 모습입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이수영 과장

❶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무제조설비와 관리, 시스템 등 모르는 분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❷ 제 어릴 적 꿈은 TV에 나오는 로봇트 태권V를 만드는 과학자였어요. 지금 로봇트 태권V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고무제조설비를 만들고 있으니, 50%는 성취한 것 아닐까요?

❸ 어려움을 느낄 때는 고무제조설비에 관한 전문 자료가 없어서 카탈로그나 매뉴얼만을 보고 해외 선진 기술을 배우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입니다. 가장 큰 보람을 얻는 순간은 제가 설계한 기계가 별 문제없이 만들어 지고 설치되어 고객들이 잘 사용하시는 걸 볼 때입니다.

❹ 나무가 아닌 숲을, 업무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❺ 경력직으로 입사했지만 신입사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초심으로 돌아가 나와 회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❻ SIMPAC인더스트리가 2014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국내 고무제조설비 1위 기업이라 말할 수 있는 SIMPAC인더스트리를 만들기 위해 저의 작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SIMPAC홀딩스 이엔지 사업부문 이준수 사원



SIMPAC 국내영업팀 이민석 사원

SIMPAC인더스트리  
생산1팀  
김효수 사원

❶ 생산1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부평 I.C를 자주 지나다니며 SIMPAC이라는 회사 명에 익숙해졌고 호기심을 갖게 되어 대학졸업 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곳에서 근무 중이네요.

❷ 안전모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로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꿈을 이루기까지는 한참 남

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그 점이 더 힘이 나는 요즘입니다.

❸ 실무에 바로 투입되어 배워가며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때문인지 배운 것을 활용해 임무와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❹ 작업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업무 특성상 시간에 비례해 경험을 쌓게 되는데 시간을 단축시켜서 노하우를 습득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❺ 팀워크가 무엇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 가장 뒤처져 있던 우리 조가 마지막 날엔 가장 좋은 팀워크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역시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❻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도 잦은 편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외국어 구사 능력,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세계 어디서든 SIMPAC을 대표할 수 있는 SIMPAC인이 될 것입니다.



SIMPAC 생산1팀 박결 사원

SIMPAC메탈로이  
1공장 합금철생산팀  
김상원 사원

❶ 신소재공학을 전공해서 관련 있는 합금철 생산 업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❷ 학창시절 꿈꾸던 직업은 적성에 맞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회사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꿈을 SIMPAC메탈로이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고요.

❸ 아직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때 힘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극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를 개선해나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이수영 과장

❹ 합금철생산팀 선배님들의 언제나 근면 성실한 모습들을 본받고 배우고 싶습니다.

❺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각 지역의 계열사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교류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❻ 말은 바 업무에 부족한 면이 없는 SIMPAC인이 되고 싶습니다. 2015년 SIMPAC메탈로이 합금철생산팀 화이팅!입니다.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우경란 사원

❶ 근태 확인, 부서 내 발생하는 비용 처리, 마감 업무와 소모품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입사 전 SIMPAC메탈로이가 합금철 분야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지원 기회가 있어 꼭 가야 하는 곳이다 생각해 지원하게 됐죠.

❷ 일반 회사원이 된 제 모습을 그려보곤 했는데요, 이렇게 SIMPAC인이 되어 일을 배우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❸ 아무래도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 한 번 물어 봤던 것을 다시 물어봐야 할 때 죄송해요, 지금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 들지 않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도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 한 마디로 하루가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❹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지 않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 처리하는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❺ 첫째 날 '뽕뽕'을 함께 만들어 날리면서 나의 목표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조원끼리 협심하게 되어 이후 모든 체험과 프로그램에서 저절로 의욕이 솟아나 매우 즐거웠습니다.

❻ 서로 소통하고 모든 일을 즐길 줄 아는 SIMPAC인이 되고 싶습니다. 2014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후회 없는 2015년을 만들겠습니다!

SIMPAC메탈  
인사총무팀  
이두현 사원

❶ 인사총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SIMPAC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철강업에서 종사하고 계셔서 알고 있었고, 제가 원하는 직무를 뽑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❷ 저는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이 좋아 개그맨을 꿈꿨습니다. SIMPAC인이 된 지금은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❸ 처음 일을 배울 때,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나',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건가' 등 확인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제 생각대로 진행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묻고 확인하며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며 성장하는 제 모습에 보람도 느낍니다.

❹ 빈틈없는 일 처리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지적을 받을 때면 저도 더 꼼꼼하게 업무를 진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❺ 조별 과제 발표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각 회사의 신입사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나누며 서로 이해할 수 있었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만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❻ 호랑이 같은 SIMPAC인이 되고 싶습니다. 맹수의 왕인 호랑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로서, 몸담은 영역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015년에는 호랑이 같은 존재감을 SIMPAC메탈에 새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생산1팀 김효수 사원



SIMPAC메탈로이 1공장 합금철생산팀 김상원 사원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우경란 사원



SIMPAC메탈 경영지원팀 이두현 사원



# 찰칵! 우리들의 멋진 순간

사진으로 보는 3박 4일 하이라이트

1st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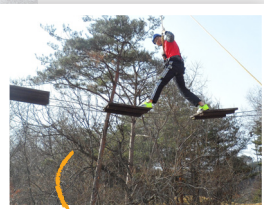


전지중 대표이사 특강



셀프 리더십 및  
의식고도화 훈련

2nd Day



챌린지 어드벤처



3rd Day



실내 조정



제로 베이스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SIMPAC에서 만나 SIMPAC에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합니다!”

SIMPAC 품질지원팀 한완수 대리  
경영지원팀 장영미 사원

SIMPAC 품질지원팀 한완수 대리와 경영지원팀 장영미 사원은 매일 아침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출근길에 오른다. 스릴만점의 사내 비밀연애를 끝내고 지난 2014년 9월,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직장과 가정에서 함께이기에 부부는 더 많은 일상과 꿈을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똑 부러지게 잡아낸 새내기 부부의 달콤한 러브 스토리를 들어봤다.

### 직장 선후배에서 달콤한 연인으로

####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완수 대리 품질지원팀에서 근무하며 프레스를 제작하는 동안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결혼한 새내기 신랑이기도 하고요.

장영미 사원 저는 지난 2011년, SIMPAC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에서 전지중 대표이사님의 비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사내 커플로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된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두 분의 첫 만남은 어땠나요?

장영미 사원 SIMPAC에 입사한 후 부서마다 인사를 다닐 때 처음 만났어요. 이후에는 회식 자리에서 가끔 어울리는 정도였고요. 아무래도 소속된 팀이 다르다 보니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았죠.

한완수 대리 그러던 중에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교육을 같은 기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이었는데 우연히 날짜가 같았고, 그 때 밖에서 따로 만나 밥을 먹으며 친해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예뻐고(웃음), 차분하고 착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장영미 사원 그때는 선배님께서 밥을 먹자고 하시니까, 밥 한 끼 먹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말자고 생각하며 응했죠(웃음). 그때부터 종종 밖에서 만나며 친해졌는데, 만날수록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다정다감하면서도 재미있고, 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만남이 즐거웠어요. 그렇게 2012년 11월 경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연애 기간 중 서로에게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장영미 사원 신랑이 요리를 잘해요. 크리스마스나 생일에 맛있는 요리를 해준 것이 기억나네요. 또 결혼 후에도 종종 집들이를 할 때, 신랑이 직접 요리를 해서 제 친구들에게 대접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무척 부러워하고, 저도 뿌듯했죠.

한완수 대리 결혼 전에는 자취를 했기 때문에, 살기 위한 요리였다고 할까요?(웃음) 저도 요리로 받았던 감동이 생각나네요. 연애시절, 인도로 한 달 정도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귀국하는 날, 아내가 직접 만든 한식 도시락을 들고 마중 나왔더라고요. 무척 고마웠어요.







## 비밀연애 끝,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맺다

###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한완수 대리** 연애할 때 제 부모님과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미 사원** 신랑의 집안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저에게는 늘 든직한 선배이고 남자인 신랑이 부모님과 있을 때는 막내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이니 새롭게 느껴졌어요. 내가 모르는 이 사람의 매력이 아직도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 비밀연애였는데 처음 공개할 때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한완수 대리** 회사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결혼 한두 달 전이었어요. 팀 워크숍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놀라셨죠. 덕분에 축하주도 많이 마셨습니다.

**장영미 사원** 저희 팀 분들은 제가 항상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없는 게 분명하다고 놀리곤 하셨어요. 현대 공개하기 얼마 전 남자친구가 사내에 있다는 소문이 나서, 몇몇 분들이 한완수 대리가 남자친구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딱 걸린 거죠(웃음).

**한완수 대리** 미혼인 남직원이 별로 없다 보니 쉽게 추측을 하셨나 봐요.

**장영미 사원** 아니에요. 미혼은 많은데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던 거예요(웃음).

**한완수 대리**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웃음). 제 아내가 사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여직원 수가 워낙 적다 보니, 높은 경쟁률을 뚫었다거나 영큼하다고 놀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같은 팀 직원이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사적으로 대화가 없던 다른 팀 분들도 농담을 건네곤 하세요. 사내관계가 보다 유연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 배우자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장영미 사원** 사실 연애 초기부터 저희 관계를 알고 있던 분이 계세요. 바로 전지중 대표이사님입니다. 연애할 때, 회사가 있는 인천을 피해 주로 서울에서 데이트를 했는데요,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서울의 한 스케이트장에서 대표이사님을 마주친 거예요. 너무 놀라고 당황했는데, 비밀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사실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강원도 평창에서 결혼식을 하는데다가 주례를 맡기엔 아직 젊으신 터라 부탁을 드리기 죄송스럽더라고요. 마침 출장이 있으시기도 했어요. 현대 다녀오시자마자 사모님과 함께 평창까지 와주셨어요. 무척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 든든한 남편, 씩씩한 아내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 신혼생활은 어떤가요? 연애 땐 몰랐던 모습도 새삼 발견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완수 대리** 약하고 여리게만 봤는데, 의외로 든든한 면이 많더라고요. 업무 특성상 저보다 늦게 퇴근할 때가 많은데, 힘든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밥을 차려주려고 하는 것도 고맙고요. 저야 마냥 좋습니다(웃음).

**장영미 사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맞벌이를 해도 남자가 집안일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을 가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신랑은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고맙죠. 또 최근 제가 부서에서 교육 쪽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회사 생활에 있어 저보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배 직장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 앞으로 두 분이 꾸려갈 가정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끝으로 각자 다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한완수 대리** 저는 개인적으로 든직한 남편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돌이 있지만 앞으로 아이도 생길 거고,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든직한 가장이 되어야죠. 업무 역량을 키우는 것 역시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팀 내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어학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SIMPAC인이 되려 합니다.

**장영미 사원** 저는 씩씩한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할게요. 인생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씩씩한 기운을 남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웃음). 그래서 저는 반대의 의미로 '내편'이라고 남편을 부르곤 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의 편이 되어주면서 소중한 인연을 찾게 해준 SIMPAC에서도 제 역할을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 최고의 감속기, 우리 손안에 있소이다!

SIMPAC인더스트리 생산2팀의  
정설희 과장 · 송재현 반장 · 유광석 조장 · 이성호 사원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라는 어느 영화 속 대사처럼, 개개인의 우수한 역량도 하나의 마음으로 모일 때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다. 높은 숙련도로 1인 多역을 해내는 베테랑들이 모여 있는 SIMPAC인더스트리 생산2팀의 힘 역시 여기에 있다. 주체적으로 일하되 한 마음, 한 뜻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SIMPAC인더스트리 생산2팀의 구성원들. 그 뜨거운 열정이 한겨울의 한파마저 무색하게 한다.

### 0.03%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인천시 가좌동에 위치한 SIMPAC인더스트리 감속기 생산현장. 곳곳에서 감속기의 주요 부품인 기어(Gear)를 선삭하고 치절(톱니바퀴의 톱니를 깎는 일)하는 등의 공정이 한창이다. 마무리된 크고 작은 기어들의 조립을 위한 열처리도 한쪽에서 이뤄지고 있다. 출하 대기를 앞둔 완제품도 눈에 띈다. 감속기 제작에 필요한 기어부터 케이스 가공까지, 모든 작업과정을 통해 완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들은 바로 SIMPAC인더스트리 생산2팀 구성원들이다.

송재현 작업반장과 유광석 작업조장 등을 포함한 현장 직원 8명과 정설희 과장, 이성호 사원 등의 관리 직원 3명으로 구성된 SIMPAC인더스트리 생산2팀. 그들이 생산하는 감속기는 국내외 유수의 고객사들이 찾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생산2팀의 관리책임자인 정설희 과장은 “SIMPAC인더스트리 감속기의 불량률은 0.03% 이하로 업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품질에 있어서 만큼은 어디와 견주어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라며 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처럼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은 감속기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높은 숙련도를 지닌 팀원들의 공이 크다. 현장을 이끄는 송재현 반장은 1992년에 입사해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다. 그런 송재현 반장을 보좌하며 최종적인 조립과 배관설비 등을 담당하는 유광석 작업조장 역시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다른 팀원들 역시 내로라하는 경력과 업무 숙련도를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인다.

### 척하면 척, 눈빛만 봐도 통한다

이처럼 개개인의 우수한 역량은 하나의 조직 아래 합쳐질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SIMPAC인더스트리의 생산2팀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능동적으로 일하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팀워크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함께 손발을 맞춘 시간이 길다 보니,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소통하려는 자세로 서로를 대한다고 자랑한다. 매일 아침에는 다같이 하루 업무를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도 가진다고, 지난해 입사한 새내기 이성호 사원은 “팀 분위기가 워낙 좋아 처음에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선배님들이 항상 잘 알려주시고요.”라며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다.





정설희 과장



송재현 반장



유광석 조장



이성호 사원

이렇게 새내기 사원부터 20년 차 베테랑 사원까지 조화를 이뤄 일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회식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다. 어느 현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감속기 생산현장 역시 안전사고와 품질에 대한 긴장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곳이다. 때문에 팀원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긴장을 풀며 서로를 격려하곤 한다. 일에 대한 고민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주제를 넘나드는 대화 속에 마음의 벽은 허물어져 내린다. 그렇게 회로애락의 순간들을 함께 하는 사이, 신뢰와 팀워크는 그 뿌리를 단단하게 내렸다.

## 함께하기에 배가 되는 노동의 보람

평소 다져진 팀워크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지난 여름 몰려든 생산 주문도 팀원 모두의 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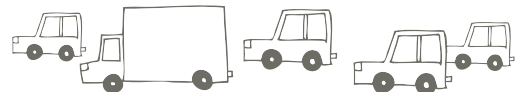
“여름 휴가철에 주문이 한꺼번에 몰렸어요. 계획했던 휴가도 반납하며 다들 열심히 일을 한 덕에 납기일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서련석 대표이사님께서 수고한 만큼 반드시 휴가를 다녀오라고 말씀해주셔서 생산2팀 모두 뒤늦은 휴가를 다녀왔어요, 열심히 일을 한 후 떠난 휴가라 그런지 무척 즐겁고 흥분했던 것 같아요.”

유광석 조장의 말에 정설희 과장 역시 “힘은 들었지만 많은 제품들이 출하대기 상태로 놓여있을 때 매우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라며 당시를 떠올린다.

각자가 지닌 개성도 강점도 저마다 다른 생산2팀.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뜨거운 열정이다. 자신들을 열정의 빨간색과 같은 팀이라 칭하는 생산2팀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뜨겁게 일하며 그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길 꿈꾼다.

“생산2팀의 2015년도 목표는 8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주간, 월간 단위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흑자운영을 하는 생산2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팀원들이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해내는 지금의 방식을 이어나가면서요.”

정설희 과장이 자신 있게 밝힌 신년 포부로, 또 한 번 마음이 뜨겁게 달궜지는 팀원들이다. 서로 다른 기어들이 모여 하나의 완벽한 감속기가 만들어지듯, 한 명 한 명의 열정이 더해져 생산2팀만의 경쟁력이 완성된다. 그 끈끈한 열정을 윤회유 삼아 힘차게 달릴 2015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본다.



## MESSAGE TO YOU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지만 마음은 드러내고 표현할수록 커지기 마련.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담고만 있었던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 정설희 과장→유광석 조장

유광석 조장님은 업무 실행력과 순발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세요. 두세 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도 척척 해내실 정도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시죠. 평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 유광석 조장→송재현 반장

현장에서 직원들을 잘 이끌어주는 송재현 반장님이 계셔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경력을 지니고 계심에도 늘 앞장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 송재현 반장→이성호 사원

팀에 젊은 직원이 없었는데, 이성호 사원이 오면서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게다가 적응도 잘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론과 실무 감각 모두를 갖춘 보기 드문 신입사원인 것 같습니다.



### 이성호 사원→정설희 과장

일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항상 꼼꼼하게 일을 계획하시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바가 크고요. 열심히 보고 배워서 과장님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든든한 후배로 성장하겠습니다!





## 탁 트인 정상의 풍경처럼 우리의 미래도 펼쳐지리!

SIMPAC그룹 창립기념, SIMPAC인더스트리 임직원 마니산 등반

### 창립일 맞아 전 임직원이 마니산 등반

하늘은 호수처럼 맑고 바람은 기분 좋게 선선한 11월 첫째 주 토요일. 어디로 떠나든 늦가을의 정취가 살아 있어 야외활동하기에 안성맞춤인 시기다. 이른 아침부터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SIMPAC인더스트리 사옥 앞에는 단풍처럼 붉은 빛깔의 점퍼를 맞춰 입은 SIMPAC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8시가 되자 준비된 차량에 몸을 싣고 이들이 향한 곳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마니산. SIMPAC그룹 창립일을 맞아 전 임직원이 마니산을 함

께 오르기로 한 것이다. 출발한지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마니산 매표소 앞에 도착해 숲이 뿜어내는 향긋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풀었다. 오랜만의 나들이 여서인지 카메라 앞에 선 이들의 표정이 밝다. 이어 창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서련석 대표이사의 간단한 인사말을 시작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단군 등산로를 따라 대열을 갖추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 함께 산을 오르며 즐기는 서해의 풍경

남쪽으로는 한라산, 북쪽으로는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같아 '국토의 배꼽'이라고도 불리는 마니산은 높이 올라갈수록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들녘 풍경이 일품이다. 중간중간 준비해 온 간식거리를 나누고 탁 트인 시야로 들어오는 서해 바다를 보며 걷다 보니 어느덧 정상이었다. 멀리서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 이마와 등에 맺힌 땀방울을 식혀주었다.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은 뒤에는 맛있는 점심식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함허동천 매표소 쪽으로 내려왔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등산 후 식사는 비할 데 없는 그야말로 꿀맛이다. 상기된 얼굴을 하고 모두들 테이블에 모여 앉아 푸짐한 야외부패를 즐겼다. 잘 구워진 고기를 서로 챙겨주고 빈 잔을 채워주며 그렇게 SIMPAC인더스트리의 임직원들은 2014년의 창립기념일을 함께 마무리했다.







## 몸도 마음도 충천한 ‘가을로의 여행’

### SIMPAC메탈로이 직원화합 행사

글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

지난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간, 총 3차에 걸쳐 SIMPAC메탈로이 임직원들은 경북 청송군에 있는 주왕산과 주산지로 '가을로의 여행'을 다녀왔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과 붉게 물든 단풍,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람을 즐기며 먼저 향한 곳은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주왕산이었다.

일상에서 벗어난 설렘 때문인지, 교대근무로 자주 보지 못하던 반기는 얼굴들 때문인지, 모두들 산에 오르는 내내 이야기 꽃이 만발했다. 시원스레 펼쳐진 가을 풍광에 각자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에 추억을 담느라 바빴고, 가쁜 숨을 쉬며 마침내 도착한 용추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배경으로 다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슬슬 허기를 느끼며 발걸음을 옮긴 곳은 청송달기약수터. 철분이 많이 함유된 탄산수로 위장병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바로 이 물로 폭풍인 토종닭 백숙이 출출한 우리를 위해 점심식사로 준비되어 있었다. 마파람에 게는 감추듯 맛있게 백숙 한 그릇을 비우고 다음 목적지인 주산지로 향했다. 이곳은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이곳에 와서 보면 물에 반쯤 잠긴 채로 자라고 있는 왕버들나무를 볼 수 있는데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멋진 풍광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심한 언덕이나 계단이 없어 유모차, 또는 휠체어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들과 함께 들려 볼 만한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루 종일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한 뒤에 아침에 출발했던 장소로 되돌아왔다. 특히 이날은 의례적인 뒷풀이를 생략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이들과 이 가을을 나눌 수 있도록 빠알갈게 잘 익은 청송 사과 한 상자씩 들고 귀가하도록 해 가족들에게도 점수를 딸 수 있는 하루였다.

이제 다시 바쁜 업무와 일상으로 되돌아가지만, 이날 나들이로 즐겁고 아름다운 기운을 충전해 힘든 역경을 이겨내는 SIMPAC메탈로이 직원들이 되었으면 한다.

SIMPAC메탈로이 화이팅!!!







## 상쾌한 바닷바람 마시며 두터워지는 동료애

충남 태안으로 떠난 SIMPAC메탈 한마음 전진대회

아름다운 길을 따라 함께 걷는 한마음 전진대회

지난 11월 14일, SIMPAC메탈의 임직원들이 여느 때와 다른 알록달록 외  
출복 차림에 SIMPAC이라고 쓰여있는 모자를 맞춰 쓰고 한 자리에 모였  
다. 아직 추위가 찾아오지 않은 늦가을의 정취 속으로 한마음 전진대회를  
떠난 것이다. 출출한 배를 간식거리로 달래며 한 시간 반 정도 지나 도착  
한 곳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용난굴. 이곳을 시작으로 바다와 소나무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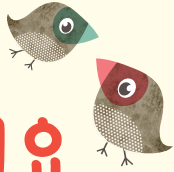
우려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 태안의 솔향기 길이 이날의 트래킹 코스다.  
매일매일 업무에 매진하며 구슬땀을 흘려 온 SIMPAC인들은 굵이굵이 펴  
쳐진 소나무길을 따라 걸으며, 쪽빛 바다가 전하는 상쾌한 바닷바람에 그  
간 쌓인 피로를 날려보냈다. 달큰한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카메라 앞에서  
브이자도 그리며 즐거운 트래킹을 마친 이들은 만대항에 도착해 점심식  
사를 함께 했다. 건배 제의를 한 송효석 대표이사는 "한 해 동안 수고해준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지금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목표  
를 향해 전진합시다!"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소중한 동료들과 잔  
을 부딪히는 SIMPAC인들의 얼굴에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으로 기분 좋은  
미소가 떠올랐다.





## 사진으로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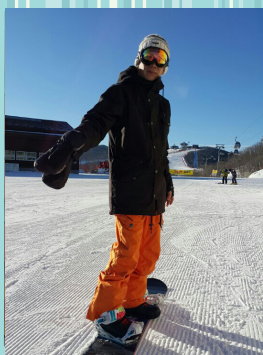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 주제는 “나의 새로운 \_\_\_\_\_”입니다.

from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윤승환 차장

제목 : 새로운 발견 - 못난이 5형제 감

내용 : 식구가 5명이라 식탁 위에 얼린 감 5개를 녹여 먹으려 올려 놓았어요. 그걸 본 막둥이가 감에 손 글씨로 낙서를 하고 갔네요. 웃는 그림이 하도 예뻐서 한 컷! 행복이란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from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B조 김삼철 선임

제목 : 나의 새로운 날개

내용 : 몇 년간 입은 낡은 옷을 처분하고 올해는 산뜻하게 새 옷으로 갈아 입었어요. 옷이 날개라더니 ‘ 훨훨’ 날 것 같아요. 혹시 슬로프에서 저를 보시면 잘 피해주세요~!



from SIMPAC메탈로이 2공장

고무반 이준호 사원

제목 : 나의 새로운 가족

내용 : 아침의 산뜻한 바람과 맑은 햇살이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것 같았던 하루. 조바심 가득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내내 걱정도 많았지만, 기쁨과 행복이 더 컸던 하루였습니다.



from 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 허명일 차장

제목 : 나의 새로운 간식

내용 : 눈이 잘 오지 않는 포항에 첫 눈 내리던 날, 입만 벌리면 맛있는 팔빙수, 솜사탕을 맘껏 먹을 수 있다는 내 아이의 동심 같이 그때를 추억하며 돌아가고픈 마음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아들이~ 먼 훗날에도 지금처럼 순수한 그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렴.

from SIMPAC메탈로이 품질안전팀 함선욱 주임

제목 : 나의 새로운 추억저장소

내용 : 매년 습관적으로 하던 다짐과 달리 올해는 조금 더 굳은 결심을 하기 위해 새로운 USB를 장만했어요. 올해 연말에는 이 USB에 고마움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담아 보려 합니다. 2015년 화이팅!!!



## 당신을 칭찬합니다

SIMPAC 구매팀 송성강 대리가  
생산2팀의 김세진 과장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생산2팀의 김세진 과장님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이 동료 및 후배들에게 큰 교훈이 되며 본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과장님은 인간성도 매우 좋으십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요?

제가 생산팀에 있을 때부터 업무가 서로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구매팀으로 자리를 옮겨 원소재 일을 맡게 되면서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기적소에 소재를 공급해야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기에 어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의 격려가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갖게 하네요.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재무Part 이보라  
사원이 경영지원팀 재무Part 송복동 과장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영지원팀 재무Part 송복동 과장님입니다. 등글등글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활기치게 만들어주십니다. 제가 재무Part로 부서 이동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요, 그간 부평으로 파견을 나가있으셔서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늘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나요?

외모나 성격 모두 다르지만 삼촌과 조카 사이처럼 더욱 가까워져 앞으로 더 허물없이 조언과 충고를 해주실 수 있는 직장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SIMPAC메탈로이 합금철생산팀 김상원 사원이  
1공장 전기로 B조 유형원 사원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1공장 전기로 B조의 유형원 사원입니다. 평소 본인의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며 너무 충실한 나머지 34살이 되도록 장가



김상원 사원과  
유형원 사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미년을 맞아 올해에는 양처럼 순하고 착한 신부감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합니다. 또한 책임감 강한 가장으로서 회사 일에 더욱 충실한 사원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요?

전기로의 제어를 맡고 있는 유형원 사원과 합금철생산팀의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 중인 저는 전기로 업무에 대해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며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 가공반  
정우성 사원이 정련반 변상관 사원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2공장 정련반 변상관 사원입니다.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변상관 사원은 늘 웃음 섞인 인사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밝은 직장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가족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이들이 바로 직장 동료입니다. 이보다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요?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큰 비전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SIMPAC메탈 생산팀 이상훈 조장이  
생산팀 전기로 C조 박재갑 사원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생산팀 전기로 C조 박재갑 사원입니다. 2012년 가족들과 김밥을 사먹고 단체 식중독에 걸려 전부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재갑 사원과 재수씨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집에 장모님 혼자 계시게 되어 걱정이 되었는데 식사나 반찬을 많이 챙겨 주기도 했어요.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2011년에 함께 당진으로 옮겨 와 동고동락하며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훈 조장과  
박재갑 사원



# SIMPAC NEWS

## SIMPAC 그룹

### 2015년 SIMPAC그룹 계열사 시무식 실시



2015년 1월 5-6일, 전국 각지에 위치한 SIMPAC 그룹 계열사 사옥에서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이 있었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SIMPAC인더스트리를 시작으로 부평의 SIMPAC, 당진의 SIMPAC메탈, 포항의 SIMPAC메탈로이까지 연이어 실시되었으며, 최진식 회장이 참석하여 화합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년사 후에는 정년퇴직자 및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사진으로 보는 시무식 풍경

05일 08:30  
SIMPAC인더스트리

05일 11:30  
SIMPAC



05일 17:00  
SIMPAC메탈



06일 14:20  
SIMPAC메탈로이

### 희망나눔 이웃 돕기 성금

|     |                 |              |
|-----|-----------------|--------------|
| 최진식 | SIMPAC그룹 회장과 직원 | 100,000,000원 |
| 이문구 | 협진해운(주) 대표이사    | 50,000,000원  |
| 홍민철 | 고려용접봉(주) 외장     | 25,000,000원  |
| 충남  | 서산교육지원청         | 18,254,750원  |

### KBS 희망나눔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 전달

2014년 12월 말,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 외 임직원 일동은 KBS에 희망나눔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성금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SIMPAC그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SIMPAC NEWS

## SIMPAC 그룹

### '최진식 고시장학금' 수여식 개최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은 2015년 1월 14일 저녁 7시, 그랜드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고시장학금 수여식에서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과 1차·2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5년 동공회(동문 공직자 모임) 신년회를 겸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공직 및 정·재계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과 장학생, 학교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공직에 진출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최진식 회장은 “처음 장학금을 전달한 해에는 2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38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나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공직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진식 회장은 지금까지 필정장학재단, 최진식 고시장학, 체육부 발전기금, 교지매입기금 등을 통해

약 15억 원을 동국대에 기부해왔다. 이에 동국대학교는 지난 2012년, 기업 경영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인재양성과 모교발전을 위해 헌신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 SIMPAC

###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수상



2014년 11월 9일, SIMPAC 경영지원팀 권순영 대리가 제52주년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소방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3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권순영 대리는 2008년 입사이래 6년간 소방업무를 담당하며 평소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로 회사 및 지역사회 안전유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다.

### 제14회 공작기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수상

SIMPAC 기술지원팀 정재교 차장이 2014년 12월 4일, 제14회 공작기계인의 날 행사에서 우수근로자로 선정되어 특허청장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정부, 업계, 학계 등 공작기계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공작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으며, 공작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와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정재교 차장은 2003년 기술연구소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기술지원팀 차장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은 물론 고객사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대응으로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프레스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 제51회 무역의 날 유공자 수상

SIMPAC 천진법인 김강욱 법인장과 생산1팀 조립3반 김정갑 반장이 2014년 12월 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1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수출유공자로 선정되어 각각 국무총리표창과 한국무역협회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무역협회의 주관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및 무역업체,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당사 김정갑 반장과 천진법인 김강욱 법인장은 각각 해외거래선 개척과 효율적 공정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 SIMPAC 이웃사랑 나눔 성품 전달

SIMPAC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후원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24일,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해성보육원에 선물을 전달하였다. 따뜻한 사랑이 절실한 아동들을 위해 SIMPAC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선물이었다. SIMPAC 전지중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SIMPAC 연말 지역사회 후원

SIMPAC이 연말을 맞아 불우한 환경의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2014년 12월 30일, 부평구청에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SIMPAC 임직원들은 어려운 시기에 작은 정성을 나눔으로써 우리 지역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전지중 대표이사가 홍미영 부평구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SIMPAC 전지중 대표이사는 “지역의 어려운 주민에

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 Notice

#### 선배와 후배의 훈훈한 만남, '멘토링 데이'



SIMPAC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은 '멘토링 데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신입사원인 멘티와 그들의 멘토가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멘티들은 멘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일에 대한 이야기와 고민을 자유롭게 나눔으로써 업무능률이 오르고 선후배 관계도 돈독해진다고 말합니다. 멘토와 멘티의 상호 발전을 위한 멘토링 활동에 앞으로도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SIMPAC NEWS

## SIMPAC 메탈로이

### 해병대 장병 위문성금 전달 및 감사패 수령



2014년 12월 24일 SIMPAC메탈로이 송효석 대표 이사 외 임직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병 1사단(사단장 황우현 소장)을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날 해병 1사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방의 중요성과 해병대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꾸준히 위문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는 당사에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연이은 북한 독재정권의 도발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국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경제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승을 기원하는 성금 전달식에서 송효석 대표이사와 황우현 사단장은 앞으로도 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보, 나아가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눴다.

### 임원·부서장 경영전략 워크샵 실시

2014년 11월 28-29일 양일간 SIMPAC메탈로이 및 SIMPAC메탈 임원과 부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려운 경영환경을 돌파해 나갈 방안에 대한 '경영전략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첫날 장장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와 열띤 토론을 통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돌파해낼 방안을 강구하느라 밤이 깊어가는지도 모르게 워크샵은 진행되었다. 다들 경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SIMPAC메탈로이와 SIMPAC메탈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봉사의 실천, 심. 봉. 사 이야기

#### 첫 번째 이야기 - 따뜻한 마음을 배달합니다

2014년 11월 1일, 회사창립 기념일을 맞아 심봉사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포항 지역 저소득 가정 중에서도 정부지원 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 7개 가정에 각 300장씩 총 2,100장의 연탄을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긴 겨울을 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좁은 골목, 낮은 천장도 마다 않고 나르는 사랑이 있어서인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인사와 정이 넘쳐나는 하루였다. 한 장에 500원 정도인 연탄이지만 추운 겨울 밤 묵숨을 연명



하게 하는 온기이며, 따뜻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불이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하루였다.

#### 두 번째 이야기 -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그리다

2014년 12월 13일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봉사에 임하던 심봉사 회원들에게 봉사 동반자가 생긴 날이다. 포항시 벽화 봉사 동호회 '사랑그리다' 팀과 함께 포항시 연일읍에 위치한 '참사랑 지역아동센터'에서 벽화그리기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지저분한 벽을 보고 있자니 어디부터 작업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으나 '사랑그리다' 팀이 숙련된 솜씨로 그려낸 스케치 위에 알록달록 색을 칠하다 보니 어느새 어두침침한 벽이 화사한 동심의 나라를 펼쳐고 있었다. 그리고 이날 심봉사 이승대 회장과 회원들은 어두운 곳에 전등을 설치하고 전열기구를 수리하는 등 재능기부도 펼쳤다. 지금까지 특별한 재능이 없는 일반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끼던 찰라 멋진 동반자를 만나게 되어 봉사의 재미와 맛을 한 번 더 느끼게 된 하루였다.



### Congratulations!

## 탄생을 축하합니다

SIMPAC 경영지원팀 권성안 대리의 둘째 공주님이 지난 12월 18일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2.9kg의 체중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권주하 양의 탄생을 축하해주세요.

## 알립니다

지난 호 다른그림찾기 정답자 - SIMPAC 생산1팀 이태환 사원 / SIMPAC 설계팀 류영빈 사원  
\*29호부터 '사진으로 말해요' 코너가 '다른그림찾기' 대신 진행됩니다. '사진으로 말해요'는 SIMPAC인들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 호 해당 주제에 맞춰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사보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다음 호 주제는 "요즘 내가 꼭 빠진 \_\_\_\_\_"입니다(3월 31일 마감).